

# 2심 “물산 합병, 승계위한 과정 증거없다”… 1심 부인

## JY 운명가른 판결 근거는

### 포괄적 청탁·0차 독대 인정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 고법 형사13부의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목시적·포괄적 청탁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심과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독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 합의와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시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삼성물산 합병, 삼성SDI 처분 주식 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서도 목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견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기다리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며 이를 이 부회장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알 수 있었던 만큼 승계 작업이라는 목시적·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가 될 것을 청와대가 알았고, 이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러한 판

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 재판부 역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은 이재용의 승계 지배력 확대가 중요했고 개별 현안이 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될 뿐,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점을 승계 작업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

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는 2014년 9월 14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독대에서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자 ‘0차 독대’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바꿨다.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0차 독대’를 갖고 합의한 만큼 1~3차 독대에서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독대 관련 주요 일지는 사후에 작성됐고 두산·포스코 독대 관련 내용을 보면 문건의 사실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재용이 안가에 왔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독대가 있었더라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1월 외환보유액 3957.5억 달러 한은 발표… 전월比 65억 달러 늘어 ‘사상 최대치’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1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57억5000만 달러로 전월 3892억7000만 달러 대비 64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한 데다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며 외환보유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93%에 달하는 국제·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이 3680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92억1000만 달러 늘었으며 예치금은 27억9000만 달러 줄어든 17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줄 News

### 정책·산업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오는 2022년에 **국내 중견기업**이 5500개로 늘어나고 1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킨 신형 수소 연료전지전기차(FCEV) ‘넥소(NEXO)’의 항속거리가 공개됐다.

▲ 내년부터 실제 고속도로에서 5G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마켓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 안전을 부결하면서 매각설이 다시 불거졌다.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은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며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유통&라이프

▲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은 광역버스에서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KT&G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 홈쇼핑, 스타트업 지원… 미래먹거리·상생 ‘두토끼’

롯데 ‘스켈터랩스’ 투자 조인식  
쇼핑 선진화 위해 AI 기술 접목

GS, 직간접투자 380여곳 달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넓혀

홈쇼핑업체가 신생 벤처기업에 규모있는 투자를 단행하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국번하는 유통환경에 따라 TV홈쇼핑이라는 틀을 넘어 차세대 ‘미디어 커머스’ 도약에 나선 것이다.

### ◆롯데, ‘AI’ 스타트업 투자

롯데홈쇼핑은 5일 양평동 본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켈터랩스’ 투자 조인식을 진행했다. 스켈터랩스는 지난 2015년 7월에 구글코리아 연구개발(R&D) 총괄 사장을 역임한 조원규 대표와 구글, 카이스트 AI 랩 출신 등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설립한 벤처 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쇼핑 경쟁에 속도를 내고자 답러닝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결심했다. 롯데홈쇼핑은



5일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왼쪽부터)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과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가 투자 협약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지난 2016년부터 14개 스타트업에 100억 원의 간접 투자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AI 등 새로운 IT 기술과 쇼핑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능화된 ‘챗봇’을 선택했다. 챗봇은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한 순차적 응답 시스템이 아닌 고객과의 대화에서 맥락과 히스토리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음성검색,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을 선보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치를

더해줄 고객 지향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은 스켈터랩스와의 협업으로 기술 역량 확보와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보편화해 차세대 미디어 커머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GS, 2700억원 투자

GS홈쇼핑은 지난 2011년부터 스타트업에 약 2700억원을 투자해왔다. 현재까지 GS홈쇼핑이 직간접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수는 380여개

에 달한다.

사업영역도 넓혔다. 글로벌 키친웨어 브랜드 ‘월드키친’의 지분을 인수, 9.1%의 지분을 확보했다. 월드키친은 코델(식기)과 비전(내열냄비), 파이렉스(제빵기구)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업체인 ‘페이코’에는 5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TV홈쇼핑에 집중됐던 사업영역을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로 전환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 동남아 벤처펀드인 메란티에 3000만불을 투자해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교류에도 힘을 실었다.

올해는 에버콜라겐으로 유명한 ‘뉴트리’에 50억원을 투자했다. 뉴트리는 지난해 590억원의 매출을 기록, 오는 2020년에는 1000억원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다.

GS홈쇼핑은 뉴트리가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판단,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해외 거점 판매를 통한 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중소 절반 자금사정 곤란… 상여금 지급도 줄어

**중기중앙회 ‘설 자금 수요조사’**  
자금사정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체감경기 냉랭

중소기업 10곳 중 5곳 가량은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곳 중 6곳 가까운 기업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다소 좋아졌지만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90%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설 연휴에 4일 이상을 쉬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1056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7.8%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기업은 9.3%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 비율(복수응답)은 지난해(47.8%)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6년(39.2%)보다는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특히 ‘곤란’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 기준 10억~30억원 이하는 50.1%, 10억원 이하는 59.4%로 규모가 작을 수록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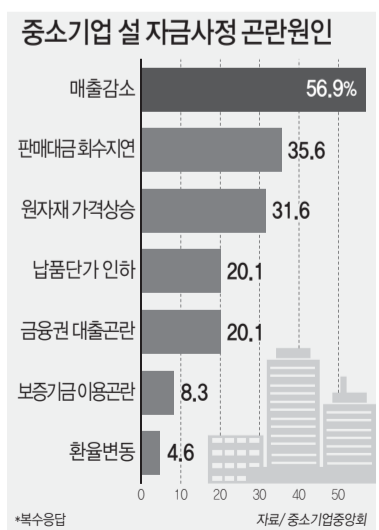
곤란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 지연’(35.6%), ‘원자재 가격 상승’(31.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자금 조달 여건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은 36.6%로 ‘원활’하다는 응답보다 25.5%포인트(p)나 높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33.6%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경우도 29.5%에 달했다.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은 56.1%였다. 이는 전년의 59.8%에 비해선 3.7%p 줄어든 숫자다.



설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 한 곳당 평균 2억31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5710만원이 부족했다.

/김승호 기자 bada@